

원조효과작업반 클러스터 C(원조투명성 및 예측성 IT) 전체회의

I. 회의개요

표제 회의가 2011년 7월 6일 파리 OECD 본부에서 원조효과작업반 클러스터 C의 주최로 김형규 주재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됨.

II. 주요내용

- PD 최종평가(원조예측성) 결과 분석. 사무국은 금번 발표된 파리선언 최종평가결과에서 원조예측성과 관련된 지표들은 진전이 없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히고 이러한 부정적 결과의 원인 중 하나로 원조예측성 산정방식의 비현실성을 제시 함.
- 원조 예측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 컨설턴트(Mokoro Ltd)를 통해 다양한 모범사례들을 분석하여 일반적인 교훈 및 권고사항을 도출 함.
- 공여국들이 반영해야할 권고사항으로 다년간 프로그램(Multi-annual programming)의 확대 운영, 국별 지원에 있어서 일관성과 유연성의 조화 등이 있고, 수원국들의 고려사항으로는 신뢰성 있는 공공재정관리시스템(PMF) 구축 및 투명한 재정관리, 효율적인 원조관리정책 수립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소개하였음. 공여국-수원국 공통사항으로는 원조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조 정보 공유, 다년간 운용계획 공동수립 등이 있음.
- CABRI(Collaborative Africa Budget Reform Initiative)가 원조재원의 투명성에 대한 아프리카의 입장을 밝힘. 수원국내에서의 재정투명성, 원조투명성, 개발효과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기반과 관련 인프라가 확보 되어야 하며 민주적·경제적거버넌스의 핵심인 공공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함.
- DAC 통계작업반은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DAC의 원조액보고 시스템(CRS)의 활용확대를 제안. 원조투명성은 정치적·선언적 공약과 더불어 계량적·통계적 조치가 수반될 때 실질적인 진전이 기대 됨.
- 사무국은 Cluster C의 입장문서 초안(Consensus on Transparency and Aid Predictability Increasing Transparency and Improving Aid Predictability for better Ownership and Accountability)을 회람하고 각 회원국들의 의견을 7월 9일 이전까지 알려줄 것 요청 함.